

일반여성의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양 은 순

동서울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Skin Care

Yang, Eun-Soon

Dept. of Beauty Coordination, Dongseoul College
(2004. 7. 2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operant factors, or types of skin care, and, more importantly, to propose the intervention for more effective skin care and marketing strategies in this business. That is the main reason that the study employes Q methodology which measures human subjectivity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This study finally revealed three distinctive factors : Type I, The Passive Follower, Type II, The Active Needs, and Type III, The Independent Judgment. The first type includes people who show passive recognition. They want to be put in charge of experts in the skin care center and to buy cosmetics recommended by experts, and are deep interest in the reaction of other people. The second type contains people who desire things actively. To live delightfully and fashionably, they think of the necessity of skin and body care as an important thing, and feel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care of the skin beauty actively and regularly for the aging resistance. The third type includes people who judge independently. In general, they recognize and desire the necessity of the skin care, but they think of the skin care as a part of the health care more widely rather than a special thing. These three types are not fixed, but continuously changed in the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circumstance,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the skin and health care through the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type they belong.

Key words : type of skin care(피부미용관리의 유형), subjectivity(주관성), passive follower (수동적 지각), active needs(적극적 요구), independent judgment(독립적 판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 경제적 풍요와 대중매체를 통한 미의 가치가 과대하게 부여됨으로 인해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와 관심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관심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게 한다.

우리 신체건강에서 눈에 직접 보이는 피부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여자에게는 피부건강과 미용이 모든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얼굴에 있는 결점을 감추고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곱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피부미용과 관련된 화장품을 애용하고 있다¹⁾.

*Corresponding author: Yang, Eun-Soon
E-mail: yes0411@yahoo.co.kr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자신의 피부 그 중에서도 노출된 부위를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은 있는 그대로를 전해 내려오는 민간 미용법 등으로 본인이 하던 단계에서 점차 다양해진 화장품, 새로운 미용법들의 개발과 함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피부미용관리실을 찾아 피부 건강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²⁾.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시술하는 서비스의 종목은 피부미용 상담, 얼굴 피부 손질, 진신 피부 손질, 피부타입별 화장품 선정, 매니큐어(manicure), 페디큐어(pedicure), 발관리, 두피손질, 눈썹다듬기, 탈모, 화장, 눈썹염색 등으로 규정 한다³⁾.

피부미용관리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기 전의 초기단계에서는 피부미용관리실의 분포가 수요보다 적어서 시설이 설치되지만 하면 고객이 유입되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피부미용관리실 수가 늘어나면서 시설이나 기술 그 자체 기능만으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영업방법, 서비스의 형태 등의 종합적인 만족 여부가 고객 유입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용객의 변동이 심해져 불안정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피부미용관리실이 설립되었고, 또한 지금도 새로운 피부미용관리실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요즘의 피부미용관리실은 그 시설이나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⁴⁾.

또한, 의료인들의 대대적인 피부미용관리실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피부미용관리실의 고객들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하게 되고 또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역시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피부미용시장의 변화 속에서 피부미용관리실의 마케팅전략과 관리체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심층적인 심리구조와 행동양식을 파악하여 그들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 시켜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연구를 보면 피부미용에 대한 이론들과 피부미용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위, 습관, 피부미용관리태도와 실천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일반여성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가 부재하였다.

피부미용관리실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 피부미용관리실을 찾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고객 위주의 피부미용관리실 운영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일반여성들이 지각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행동 연구에 대한 조사연구방법중의 하나인 Q-방법론을 이용하여⁵⁾, 일반여성이 지각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적 특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분석·설명함으로써 피부미용관리실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피부미용관리에 관한 일반여성들의 구조적 유형을 찾아내어 그 주관성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피부미용관리실의 마케팅전략과 관리체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여성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을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2. 일반여성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부미용관리

오늘날 생활의 여유는 자아의식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 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 욕구도 강해지고 있다⁶⁾. 그리고 신체의 외모는 그 개인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요소로서 자신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호의적인 인상을 창조하려 한다⁷⁾.

우리말 큰사전(1991)에 의하면 미용은 “얼굴이나 머리를 매만짐. 복식이외의 방법으로 즉, 화장품이나 결발 등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 기교를 행하는 수단을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osmetology Dictionary(1995)에는 미용(cosmetology)은 얼굴, 피부, 두발과 손·발톱의 상태를 개선하여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예술인 동시에 과학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또한 미용은 인간의 욕구 자체가 안전이나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 가치 표현과 자아실현으로 옮겨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며⁹⁾,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이고¹⁰⁻¹¹⁾, 피부미용관리시 필요한 접촉은 의미심장한 언어 교환의 기초이다¹²⁾.

미용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치장만이 아니라 내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모색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부미용관리는 유해한 환경으로 인한 자극과 피부노화로부터 적극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고도의 산업화로 대중화된 물질 위주의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상실된 인간에게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내적 관리이다.

피부는 인체의 외부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외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의 대사에 필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영위하는 생명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며, 다른 기관과¹³⁾는 다르게 외부에서 직접 볼 수 있고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아름다운 피부는 곧 건강한 피부를 말하며, 건강한 피부는 신체의 모든 조직 기능이 건강한 상태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건강한 피부는 싱싱하고 탄력 있는 피부 결에 적당한 윤기와 혈색이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피부는 눈으로 보아도 꺼질하고 창백해 보여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피부를 전신의 건강상태를 비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 적당한 운동과 영양섭취, 적절한 휴식 등으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면서,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피부의 올바른 관리 등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영(1998)은 피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피부미용관리 행위는 결국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한 움직임으로, 생활방식 또는 삶의 양식 변화라는 속성을 가진 건강 증진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고, 장경자(2000)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피부미용관리습관과 건전한 생활습관 등의 건강행위를 통해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김희진(2000)은 중년 여성들의 피부미용관리는 젊음을 유지하려는 건강생활양식의 한 방법으로 노화를 예방하게 되고 자아의 이미지나 자아인식을 깨우쳐 심리적으로 자기성취, 자기실현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 즉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지지를 받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중년이 경험하게 되는 갱년기의 위기감, 우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중년여성

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피부미용관리의 필요성과 효과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¹⁴⁻¹⁶⁾, 오늘날 피부미용관리는 가정에서 개인의 노력 차원을 넘어 피부미용관리 전문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피부미용관리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피부미용 관리는 두발을 제외한 얼굴과 신체피부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며 얼굴과 신체 미용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핸드테크닉 및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전신미용술¹⁷⁾, 즉 각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른 미용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손상된 피부의 건강상태를 증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피부미용 관리는 인체기능과 생리에 바탕을 두고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이용하여 피부미용사의 전문적인 기술로써 시술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피부미용관리 방법으로는 세안과 팩, 크림이나 영양앰플의 사용으로 마사지하는 일반마사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미용기기관리 즉 얼굴리프팅기, 바이브레이션기, 이온영동법(iontophoresis), 진공흡입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으며, 정유를 이용한 아로마요법, 림프배농술, 안티 스트레스마사지, 스웨덴마사지,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경락, 반사요법(Reflex Zone), 한방미용, 칼라테라피 등이 있고 최근에는 돌을 이용한 스톤테라피가 소개되기도 한다¹⁹⁻²¹⁾.

피부미용관리실이 전문화, 세분화, 고급화, 대형화됨으로서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차원을 뛰어 넘어 현장경험을 가미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피부미용관리실 경영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2. Q-방법론

Q-방법론은 Stephenson(1953)에 의해 창안, 인간행동 연구대안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제안되어 계속 발전하여 온 조사연구방법 중의 하나로써 자아심리학의 인간 본성에 관한 과학, 철학적 가정과 가설생성의 과학적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가치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주관성(subjectivity)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독특한 방법이다²²⁾.

기존의 R-방법론이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Q-방법론은 가설로 향하는 논리 즉 가설발전

의 논리로 ‘발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방법론이며 Q-방법론은 분석의 기본단위가 사람이고 인간의 총체성을 보게 해주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쟁점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용해되어 있는지를 찾아 내어 개념, 이론, 법칙 그리고 현실에의 적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²³⁻²⁴⁾.

또한,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본을 제시한 것으로 자아(self)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연구에 유용하며,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인간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부미용관리실의 마케팅전략과 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여성이 지각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일반여성이 지각하고 있는 피부미용관

리를 유형화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각 개인의 주관성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2. 연구절차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Q-유형의 형성

<표 1> 본 연구의 절차 및 과정

제1단계 (Q-표본의 선정)
1. Q-모집단(concourse)의 구성
· 피부미용관리와 관련된 문헌, 선행연구를 통한 진술문 추출
· 피부미용관리실 고객의 심층면담을 통한 진술문 추출
· 피부미용관리사, 미용업계종사자, 미용과 학생, 피부미용과 교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개방형의 포괄적 단일항목질문(면담 및 서면조사)을 통한 진술문 추출
· 총 152개의 항목이 수집됨
2. Q-표본의 선정
· 내용의 중복 여부 및 의미파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정
· 최종적으로 33개의 진술문 선정<표 4>
3. Q-카드와 Q-표본분포도를 준비함
↓
제2단계 (P-표본의 선정)
· 피부미용관리실 이용자 38명을 편의 표집방법으로 선정<표 5>
↓
제3단계 (Q-표본의 선정)
· 강제 정상 분포방식에 따라 6×10cm 카드에 인쇄된 33개 Q-표본 진술문을 9점 척도상에 대상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함
·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대상자와의 면담 시행
↓
제4단계 (자료의 처리 및 분석)
· PC용 QUANL program에 맞는 data-file 작성 → Q-요인 분석(Q-factor analysis)실시함

PC용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여성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관한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8.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을 보면 제 1 유형이 48.5%, 제 2 유형이 5.4%, 제 3 유형이 4.2% 이었다. 제 1 유형이 48.5%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사람들의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표 2>.

3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각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으며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727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788,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628로 상관계수가 나타나 각 유형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Q-방법론에서의 요인 간 상관관계는 R-연구에서의 요인분석 방법과는 달리 각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 추출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각 유형별 대상자의 구성은 제 1유형 18명, 제 2유형 6명, 제 3유형 14명 총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5>는 각 유형에 분류된 응답자의 유형별 특성 및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인자가중치가 클수록 그가 속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혹은 이상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²⁵⁾.

2. 유형별 분석

1) 제 1 유형 : 수동적 지각형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모두 18명으로 연

령은 21-55세이며 종교는 기독교 6명, 천주교 4명, 불교 1명,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7명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는 모두 건강하거나 보통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유형은 자신의 피부미용관리와 건강, 노화방지, 아름다움의 유지를 위하여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전문관리를 받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며 그것을 낭비를 한다거나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며 전문관리실을 찾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비싸다고 내 피부에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화를 예방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전문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피부관리실 이용 후 주위로부터 좋은 반응에 계속관리를 받고 싶은 태도를 가진 제 1유형을 「수동적 지각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 2 유형 : 적극적 요구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모두 6명이며 연령은 21-39세이며 종교는 기독교 3명, 불교 1명,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2명이며, 1명을 제외한 5명이 고학력 소지자이고 월 평균 수입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표 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제 1유형의 전문적 피부미용관리에 의존하는 수동적 지각형과는 달리 전문피부미용관리실에서 하는 피부미용관리만이 진정한 피부미용관리라는 고정관념은 없지만, 피부미용관리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주지 못한다, 피부관리실에 다니는 것은 효과가 없다, 피부관리실을 다니는 것은 돈 낭비다 라는 진술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유형별 Eigenvalue와 변량의 백분율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아이겐치	18.4112	2.0494	1.5951
변량의%	.4845	.0539	.0420
누적빈도	.4845	.5384	.5804

<표 3> 유형간의 상관관계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제 1유형	1.000		
제 2유형	.727	1.000	
제 3유형	.788	.628	1.000

<표 4> Q-표본 진술문 내용

Q 진술문

1. 피부미용관리실 이용 후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계속 관리를 받고 싶다.
2. 고운 피부를 갖고 싶은 것은 여자의 본능이므로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전문 관리를 받고 싶다.
3. 피부미용관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감을 느낀다.
4. 고급스런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5.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6.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은 가격이나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쓰고 싶다.
7. 친구가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닌 후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을 하면 나도 관리를 받고 싶다.
8. 피부미용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인간적인 존중감과 함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좋다.
9. 즐겁고 멋있게 살기 위해 피부와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는 여성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10. 피부가 좋은 여성을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교양을 나타내는 것 같아 피부미용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11. 좋은 피부를 갖는 것은 외모에 자신감이 생겨 이성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다.
12.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니다가 그만두면 피부가 더 나빠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3. 피부미용관리는 사회적인 유행일 뿐이므로 전문적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에 큰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
14.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 문제가 있으면 피부미용관리실에서의 전문적인 관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15. 피부미용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은 신체적인 문제들을 정신적인 긴장 완화를 통해 해소 시켜주므로 내 몸 전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나이가 들수록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하는 비만, 경락 마사지, 발마사지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관리에도 관심이 있다.
18. 비싼 관리와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서 내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 문제성인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판매하는 외국 브랜드의 피부미용관리 전문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싶다.
20. 잘 먹고, 잘 자면 피부는 좋아지는 것이므로 피부미용관리는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1. 내 피부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22. 좋은 피부를 가지는 것은 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꾸준히 피부미용관리를 하고 싶다.
23. 피부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보면,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피부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싶다.
24.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피부미용관리실을 다니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25.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 피부미용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편이다.
26.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으므로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니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7.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권해주는 화장품은 백화점등에서 구입하는 화장품보다 피부를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28.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문제는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피부미용관리실에서의 어떤 관리도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29. 피부미용관리는 일시적인 효과 밖에 주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30. 인터넷, 잡지 등에서 피부미용관리에 효과가 높다고 광고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빨리 그 관리를 받고 싶어진다.
31. 몸이 건강하면 피부도 좋아지므로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니는 것보다는 헬스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2.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하는 발관리와 등관리는 노화, 비만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체의 상태를 호전시켜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33. 경락의 흐름을 따라 손으로 마사지는 전신경락마사지는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5>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유형	순위	연구 대상자 번호	인자 가중치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정도	직업	종교	가족 월평균 수입	질병/수술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피부 관리실 방문횟수
I	1	VAR..6	1.8338	21	미혼	대졸	회사원	천주교	300-500	없음	건강하다	주 1-2회
	2	VAR..21	1.6344	33	결혼	대졸	사무직	천주교	300-500	있음	건강하다	주 1-2회
	3	VAR..28	1.6342	35	미혼	대학원 이상	회사원	없음	200-300	없음	건강하다	월 2-3회
	4	VAR..13	1.7274	55	결혼	대졸	개인사업	기독교	500이상	있음 (당뇨)	보통이다	월 1회미만
	5	VAR..11	1.8595	44	별거	고졸	전문직	천주교	200-300	없음	보통이다	주 1-2회
	6	VAR..2	1.8521	38	결혼	대졸	주부	없음	200-300	없음	건강하다	월 2-3회
	7	VAR..5	1.6443	26	미혼	대졸	회사원	없음	100미만	없음	건강하다	월 2-3회
	8	VAR..15	1.0913	32	미혼	대졸	회사원	불교	200-300	없음	보통이다	월 2-3회
	9	VAR..34	.5313	24	미혼	고졸	회사원	없음	300-500	있음 (정형외과)	건강하다	월 1회미만
	10	VAR..1	1.0211	24	미혼	고졸	학생	기독교	200-300	없음	보통이다	월 1회미만
	11	VAR..12	1.2853	29	미혼	고졸	회사원	기독교	300-500	없음	보통이다	월 2-3회
	12	VAR..16	1.0170	28	미혼	대졸	전문직	없음	300-500	없음	보통이다	월 2-3회
	13	VAR..25	.8805	27	미혼	대졸	전문직	천주교	500이상	있음 (맹장수술)	보통이다	주 1-2회
	14	VAR..18	.7900	41	미혼	고졸	자영업	없음	200-300	있음 (부인과)	보통이다	주 1-2회
	15	VAR..30	1.0963	36	미혼	대학원 이상	대학강사	없음	100-200	있음 (자궁질환)	보통이다	주 1-2회
	16	VAR..31	.6179	39	결혼	대졸	사업	기독교	500이상	없음	보통이다	주3회이상
	17	VAR..17	.9590	37	결혼	대졸	영업	기독교	300-500	있음 (제왕절개)	보통이다	주 1-2회
	18	VAR..4	.8613	27	미혼	대졸	서비스직	기독교	200-300	없음	보통이다	월 1회미만
II	1	VAR..29	.7338	31	미혼	고졸	전문직	기독교	100미만	없음	건강하다	월 1회미만
	2	VAR..7	.8984	21	미혼	대졸	회사원	불교	200-300	있음 (성형)	건강하다	주 1-2회
	3	VAR..8	1.6697	23	미혼	대졸	회사원	기독교	300-500	없음	보통이다	월 1회미만
	4	VAR..23	.9323	37	결혼	대학원 이상	사업	기독교	500이상	있음 (유산)	건강하다	월 2-3회
	5	VAR..19	1.3627	39	결혼	대학원 이상	사무직	없음	500이상	있음 (제왕절개)	보통이다	주 1-2회
	6	VAR..22	.5751	35	결혼	대졸	회사원	없음	500이상	없음	건강하다	주 1-2회
	1	VAR..3	1.0222	22	미혼	대졸	회사원	불교	200-300	있음 (척추수술)	보통이다	월 1회미만
	2	VAR..9	2.4363	30	미혼	대졸	회사원	불교	300-500	있음 (성형)	보통이다	주 1-2회
	3	VAR..38	.6428	33	미혼	고졸	사무직	불교	300-500	없음	보통이다	월 1회미만
	4	VAR..26	.6642	30	미혼	대학원 이상	강사	없음	100-200	있음 (나리수술)	보통이다	월 2-3회
III	5	VAR..32	.7048	32	결혼	대졸	회사원	기독교	500이상	없음	건강하다	주3회이상
	6	VAR..35	.9529	24	미혼	대졸	서비스업	없음	100-200	없음	건강하다	월 1회미만
	7	VAR..36	.9243	23	미혼	대졸	회사원	없음	300-500	없음	보통이다	월 2-3회
	8	VAR..27	1.3119	62	결혼	고졸	주부	불교	500이상	있음 (자궁질환)	건강하지않다	월 1회미만
	9	VAR..14	.9544	49	결혼	대졸	피부관리사	기독교	500이상	없음	건강하다	주 1-2회
	10	VAR..33	.4240	27	미혼	대졸	회사원	없음	300-500	없음	건강하다	월 1회미만
	11	VAR..20	.8496	20	미혼	고졸	전문직	없음	300-500	없음	보통이다	월 2-3회
	12	VAR..10	.9022	40	결혼	고졸	개인사업	기독교	500이상	없음	건강하다	월 2-3회
13	VAR..24	.8365	36	결혼	대졸	회사원	불교	500이상	없음	보통이다	월 2-3회	
14	VAR..37	.4821	30	결혼	고졸	주부	없음	100-200	있음 (제왕절개)	보통이다	월 2-3회	

<표 6> 제 1 유형에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 항목	표준 점수
1	피부미용관리실 이용 후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계속 관리를 받고 싶다.	1.52
32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하는 발 관리와 등 관리는 노화, 비만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체의 상태를 호전시켜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1.32
17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하는 비만, 경락 마사지, 발마사지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관리에도 관심이 있다.	1.31
14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 문제가 있으면 피부 관리실에서의 전문적인 관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1.30
33	경락의 흐름을 따라 손으로 마사지는 전신경락마사지는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5
5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1.14
16	나이가 들수록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1
6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은 가격이나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쓰고 싶다.	-1.12
29	피부미용관리는 일시적인 효과 밖에 주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1.25
26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으므로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니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27
28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문제는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피부미용관리실에서의 어떤 관리도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1.27
20	잘 먹고, 잘 자면 피부는 좋아지는 것이므로 피부미용관리는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28
13	피부미용관리는 사회적인 유행일 뿐이므로 전문적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에 큰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	-1.48
21	내 피부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1.50
24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피부미용관리실을 다니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1.79

<표 7> 제 2 유형에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 항목	표준 점수
5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1.78
16	나이가 들수록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1
9	즐겁고 멋있게 살기 위해 피부와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는 여성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1.43
1	피부미용관리실 이용 후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계속 관리를 받고 싶다.	1.33
8	피부미용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인간적인 존중감과 함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좋다.	1.26
11	좋은 피부를 갖는 것은 외모에 자신감이 생겨 이성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다.	1.22
7	친구가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닌 후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을 하면 나도 관리를 받고 싶다.	1.17
15	피부미용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은 신체적인 문제들을 정신적인 긴장 완화를 통해 해소시켜주므로 내 몸 전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4
20	잘 먹고, 잘 자면 피부는 좋아지는 것이므로 피부미용관리는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12
13	피부미용관리는 사회적인 유행일 뿐이므로 전문적으로 피부를 관리 것에 큰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	-1.12
28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문제는 몸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피부미용관리실에서의 어떤 관리도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1.15
3	피부미용관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감을 느낀다.	-1.15
24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피부미용관리실을 다니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1.51
26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으므로 피부미용관리실에 다니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63
29	피부미용관리는 일시적인 효과 밖에 주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1.70

제 2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 노화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실천행위 관한 연구²⁶⁾의 제 2 유형인 노화방지 주력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고기능의 노화주름방지 화장품의 사용과 아울러 미리 얼굴 리프팅기기관리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노화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제 2 유형을 「적극적 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3) 제 3유형 : 독립적 판단형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모두 14명으로 22-49세의 연령으로 구성되었으며 종교는 기독교 3명, 불교 5명,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상자는 6명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낮다<표 5>.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유형은 대체로 다른 유형보다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도가 있으나 피부미용관리를 특별하게 인식하기보다는 건강관리의 일종으로 넓은 의미로 판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피부미용관리가 최고라는 생각보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이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태도를 보인다. 이 유형을 「독립적 판단형」이라 명명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의 관점은 일반여성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구조를 규명하여 유형의 특성에

맞는 피부미용관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개인의 주관성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Q-방법론을 이용하였고, PC용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여성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유형은 3가지로 발견되었으며 1, 2, 3 각 유형의 변량은 각각 48.5%, 5.4%, 4.2%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58.1%의 설명력을 가지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유형은 “수동적 지각형”으로, 피부미용관리를 자신 스스로 관리하기보다는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권해주는 화장품을 구입하는 점과 주위사람들의 반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피부미용관리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 2유형은 “적극적 요구형”이며 즐겁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 피부와 몸매관리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화방지를 위해 매우 적극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보였다.

제 3유형은 “독립적 판단형”으로 대체로 다른 유형보다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도가 있으나 피부미용관리를 특별하게 인식하기보다는 건강관리의 일종으로 넓은 의미로 판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피부미용관리를 받으면서도 신체건강

<표 8> 제 3 유형에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 항목	표준 점수
16	나이가 들수록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부미용관리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9
33	경락의 흐름을 따라 손으로 마사지하는 전신경락마사지는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0
32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하는 발 관리와 등 관리는 노화, 비만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체의 상태를 호전시켜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1.47
17	피부미용관리실에서 하는 비만, 경락 마사지, 발마사지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관리에도 관심이 있다.	1.35
9	즐겁고 멋있게 살기 위해 피부와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는 여성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1.06
13	피부미용관리는 사회적인 유행일 뿐이므로 전문적으로 피부를 관리 것에 큰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	-1.22
24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피부미용관리실을 다니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1.50
29	피부미용관리는 일시적인 효과 밖에 주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1.91
6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은 가격이나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쓰고 싶다.	-1.95

이나 노화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받는 것으로 여기는 특징을 나타낸다.

피부미용관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모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얼굴의 결점을 감추고 항상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피부미용관리를 받게 된다. 깨끗한 모습의 피부를 가지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격도 밝아져 심리적 상태도 좋아지게 되어 건강한 모습과 밝은 표정, 안정감, 편안함, 여유로운 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밝고 건강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해 나간다²⁶⁾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3개의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지각 유형을 발견했다는 점이며 이 3개의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나타난 유형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절한 피부미용관리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부와 건강을 관리하는데 기초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김복희(1998).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위와 관련 요인. 경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 3.
- 2) 나명순(1998). 피부미용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심리적 특성. 조선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대한미용사회 규정집(1998). 서울: 대한미용사회 피부미용위원회.
- 4) 원윤경(1999). 미용서비스업에서의 고객만족을 위한 관계마케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 5) 김홍규(1998).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중앙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 학술세미나.
- 6) 고혜정(1996). 20대 여대생이 외제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피부 적합성 비교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1), pp. 65-89.
- 7) 이경희(1992). 미용성형 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
- 8) 김춘자(1998). 국내 피부미용관리사의 교육 및 업무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 9) 김홍규(1997). 미용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미용학회지, 3(1), pp. 5-8.
- 10) Weiss, S.J (1984). The language of touch. Nursing Research, 28(2), pp. 76-80.
- 11) Hargie, O., & Marshall. (198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A Pathetical framework. IN o. Hargie, A Hand book of communication Skills, Beckenham Kentucky : Criim Heln.
- 12) Barnett, K. (1972). A theoretical Construct of the Concept of touch as they relate to nursing. Nursing Research, 21(2), pp. 102-110.
- 13) 윤여성(1996). 신 피부미용관리학. 서울: 가람.
- 14) 최은영(1998). 건강증진모델에 기초한 여성의 피부미용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3.
- 15) 김희진(2000). 중년 여성의 피부미용관리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2.
- 16) 김연진(2002). 중년 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15.
- 17) 김명숙(2001). 피부미용관리학. 서울: 현문사, pp. 153-158.
- 18) 김 종대 외(1994). 피부미용관리학. 서울: 고문사.
- 19) 김기연 외(1999). 피부미용관리학. 서울: 수문사, pp. 124-127.
- 20) 김현주 외(2000). 에스테틱 살롱 트리트먼트. 서울: 정답, pp. 195-281.
- 21) 황정원(1998). 피부미용관리학. 서울: 현문사, pp. 215-221.
- 22) McKeown, B., & Thomas, D.(1988). Q-methodology : A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66. The publishers of professional Social Science.
- 23) 김홍규(199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 24) Stephenson, W.(1982). Q-Methodology, Inter 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The Psychological Record, 32, pp. 235-248.
- 25) 김봉인(1998).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1), pp. 123-166.
- 26) 피부미용(1997). 대한 YWCA연합회. 서울: 하나기획, pp. 10-11.